

# 광주 인공지능 융합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맞손'

AI사업단-시립미술관 협약  
예술분야 연계 AI산업 육성  
전시 등 프로젝트 공동추진  
"도시재생 등 사회문제 활용"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인공지능(AI)과 예술이 광주에서 만난다.

25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에 따르면 AI사업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3일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예술 분야 연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재도 AI사업단장 직무대행과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과 AI 기술을 접목시켜 문화 예술 콘텐츠 활성화와 AI 산업 육성 및 기술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민 대상 AI 예술 관련 사업 및 기업 홍보 △AI와 예술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양 기관 협력으로



지난 23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AI사업단과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들이 '예술 분야 연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I 전시 등 프로젝트 공동 추진 △상호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

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AI 기술

과 예술 콘텐츠 및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다채로운 예술

체험을 제공하여 미래세대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의 첫 결과물로, AI사업단과 광주시립미술관, AI스타트업 카라멜라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실감융합형 콘텐츠 전시 '빛나는 광주 도시 탐험'을 오는 8월 1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 선보인다.

'빛나는 광주 도시 탐험'은 AI사업단이 올해 '도시문제 해결형 AI 솔루션 개발 및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AI스타트업 카라멜라가 제작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는 △무등산 어드벤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별빛 놀이터 △꿈꾸는 소원나무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체험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예정이다.

광재도 AI사업단장 직무대행은 "AI와 예술의 융합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며, 도시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백일해 급증... 광주시, 휴가철 감염병 주의

꽃물·발작성 기침... 예방접종 당부

광주시는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적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백일해 환자는 5월 35명, 6월 108명, 7월 23일 현재 302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백일해는 최근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꽃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백일해 신고환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의 대부분에서 기침(99.4%) 증상이 확인됐다.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위생 준수,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발생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 2023년부터 소규모 유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의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감염때 증증화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 적기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임신 3기(27~36주) 임신부의 접종은 모체 면역을 통해 첫 기초백신을 접종하기까지 2개월 동안의 공백을 보호할 수 있기에 임신 3기 임신부의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보건소와 대응회의를 열어 백일해 발생 동향을 공유·분석하고 집단발생 때 대응방법을 점검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손목수복지건강국장은 "올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확산세가 보고되고 있다"며 "건강한 여름휴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도시공사, 에너지밸리 합동 상담창구 운영

남구와 맞춤형 입주지원 서비스

광주도시공사는 26일 광주도시공사 1층 상담실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1:1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25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관계기관 합동 1:1 상담 창구'는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광주도시공사, 광주 남구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기관별로 입주 희망 기업체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원활한 입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공동 상담 창구는 △투자협약 및 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혜택 △주요 세금 신고·납부 △각종 투자정보와

입지 여건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많은 기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양하는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5필지, 3만9433.2㎡)의 ㎡당 분양가는 97만3000원이며, 입주대상 업종은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전자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M70(연구개발업),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다.

자세한 분양정보는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분양공고' 또는 분양보상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연계한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시군·경찰·전문기관 등 참여  
공공중심 보호체계 방안 모색

전남도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전남도와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25일 진도 솔비치컨벤션센터에서 시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워크숍을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은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로 이관된 이후, 기관별 역할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마을 중심 아동학대 예방사업 '남도아이 지킴이단' 활성화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한국의 아동복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별 유대관계와 역할을 의논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3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6명을 배치해 아동보호체계 공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1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제8기 예비-명품강소기업 7곳 선정

기업성장 사다리 지원사업 첫 단계  
연구개발 과제기획 등 맞춤형 지원

광주시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2024년 제8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7곳을 선정하고 25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철저한 심사과 평가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 중인 '지역성

장사다리 지원사업'의 첫 단계로,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 가운데 신규기업은 주식회사 대원정보기술, 주식회사 메디덴, ㈜인비즈, 주식회사 첨단랩 등 4개사이다. 또 ㈜텐바이오, 주식회사 하이룸, 한국광학기술 주식회사 등 3개사는 연장기업이다.

선정 기업들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

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지원프로그램은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지원, 사회가치(ESG)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기업들이 최신 경영 트렌드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창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기업지원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 광주문학관, 무등산 주제 '길위의 인문학' 운영

광주문학관은 '무등길 인문학-시와 수필을 품고 무등산 한바퀴'를 주제로 '2024년 길위의 인문학'을 8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10주간 진행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다.

무등산 무등길 들머리에 위치한 광주문학관의 특색을 살려 작품 속에 스며있는 '무등산'의 이미지와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글쓰기를 통해 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꾸려진다.

프로그램은 △무등산의 이름들과 글쓰기 연습 △범대순 시인의 '무등산'과 '무등산' 관련 문학 △무등산의 옛이야기와 나의 생활 △무등산의 역사와 문화 등 10개 강좌로 운영되며, 8월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광주문학관 4층 세미나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학관(062-613-6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